제14권 13호
2024. 6. 24~2024. 7. 7

행복한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논단	중국식 산업정책의 새 이름, '신질생산력' 향방은?
이슈분석	중국의 거센 저가공세에 한국 산업계 '초비상'
금융경영브리프	영국 챌린저뱅크, 흑자전환 이후 3색 확장전략 가족 자산의 다음 세대와 연결 맺기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지표 의존적 중앙은행 + 물가지표 둔화 외 환 : 원화에 아군은 없다...유로화 너마저! 부 동 산 : 시장 혼조세에 매수자는 '안전'을 선택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선임연구위원	장보형(jangbo)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원	송형은(hesong)

논단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박춘원

이슈분석

연구위원	안혜영(mith5)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원	유승원(youth1)
수석연구원	하서진(seojinha)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연구원	김용태(ket1006)
외 환 | 연구위원	오현희(hyunheeoh)
부동산 | 수석연구원	하서진(seojinha)

금융지표

연구원	방승연(sybang)

내용에 대한 문의나 건의사항은 담당연구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D@hanafn.com)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제14권 13호
2024. 6. 24~2024. 7. 7

행복한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01	논단	중국식 산업정책의 새 이름, '신질생산력' 향방은?
04	이슈분석	중국의 거센 저가공세에 한국 산업계 '초비상'
08	금융경영브리프	영국 챌린저뱅크, 흑자전환 이후 3색 확장전략 가족 자산의 다음 세대와 연결 맺기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지표 의존적 중앙은행 + 물가지표 둔화 외 환 : 원화에 아군은 없다...유로화 너마저! 부 동 산 : 시장 혼조세에 매수자는 '안전'을 선택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2024년 하반기부터 금융시장 모니터는 월 단위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다음 금융시장 모니터는 14권 15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중국식 산업정책의 새 이름, '신질생산력' 향방은?

박 춘 원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최근 중국은 성장세 둔화와 경기부진에 대응하여 첨단기술·고효율·고품질을 지향하는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을 제창하고 있다. 그러나 신질생산력의 본질은 중국식 산업정책으로서 기술자강을 꾀하는 '중국제조 2025'의 후속 버전이다. 중국의 제도 미비, 인적자본 부족 등으로 혁신성장은 당분간 요원해 보이는 한편, 공급능력의 과도한 확장으로 만성적인 유효수요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 제고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은 혁신성장을 표방하는 '신질생산력'을 선보임

최근 중국은 성장세 둔화와 경기부진에 대응하여 혁신성장을 표방하는 '신질생산력'을 제창

시진핑의 '중국몽'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현대화는 중국인들의 숙원이다. 1840년 아편전쟁 참패와 이후 겪은 백 년간의 질곡이 서구식 현대화의 지체에 연유하였다는 반성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는 중국 특유의 국정(國情)을 반영한 중국식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주창해 왔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초고속 성장을 바탕으로 마침내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은 이제 대망의 현대화 과업을 달성함으로써 중소득국을 벗어나 고소득 선진국의 반열에 들 수 있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성장을 견인하던 투자와 수출의 역할이 약화되고, 높은 실업률, 부동산경기 위축 등 경기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의 지속적 발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난국에 봉착할 때마다 새로운 구호제창을 통해 대중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정치·경제적 역량을 결집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대표적으로 덩샤오핑의 '흑묘백묘',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삼개대표', '화해사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선보인 신조어는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이다. New quality productive forces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시진핑이 작년 9월 처음 언급한 후, 중앙경제공작회의('23.12월)와 정부공작보고('24.3월)에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강조되면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제20차 삼중전회에서 보다 구체적 실행방안이 밝혀질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내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신질생산력’의 본질은 정부 주도의 중국식 산업정책

‘신질생산력’은 정부 주도의 중국식 산업정책으로서 기술자강을 꾀하는 ‘중국제조 2025’의 후속 버전

‘신질생산력’은, 중국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과학기술혁신, 합리적 자원 배분 및 산업현대화를 통해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선진적 생산력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요소투입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새롭고(new: 新), 첨단기술·고효율·고품질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질적(quality: 質) 성장을 표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산업의 고급화·지능화·녹색화를 추진하는 한편, 전기차·배터리 등 신산업 우위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인공지능·바이오·양자기술 등 미래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이 탄생하게 된 것은 미중 무역 갈등이 급기야 글로벌 기술보호주의와 공급망 분절로 비화함에 따라 자국의 기술독립성 확보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간의 요소투입형 성장방식이 한계점을 보이면서 신속히 혁신성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절박감이 ‘신질생산력’이라는 구호를 통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신질생산력’은 비록 혁신성장의 외피를 두르고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중국이 그간 해왔던 정부 주도 산업정책에 대해 이름을 달리하여 붙인 것에 불과하다. 다만 차이점은 정책 대상이 전통산업이 아닌 하이테크·고부가가치의 신성장산업이라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산업생태계를 대폭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제조 강국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단적인 예로, 배터리, 전기차, AI는 이미 세계 1위의 기술 수준을 지니고 있고,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도 맹추격 중이다. 또한 신성장산업의 GDP 비중이 ‘14년 8%에서 ’22년 13%로 크게 늘었으며 내년까지 목표인 17%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의 ‘신질생산력’은 ‘중국제조 2025’의 후속 버전이라 할 수 있는데, 그간의 성취에 고무된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보다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신질생산력’이 표방하는 혁신성장은 중국의 제도 미비, 인적자본 부족 등으로 당분간 요원한 상태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혁신성장으로의 전환이 단기간에 달성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3년 WIPO의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중국은 132개 국가 중 12위로, 중소득국가로서는 유일하게 30위권 안에 드는 기염을 토하였으나, 창의성과 혁신경제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법률·비즈니스 환경 등 제도의 미비가 병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한데, 일당 지배체제가 공고한 중국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R&D 활동의 핵심전제조건인 인적자본 축적과 관련하여, 대부분 선진국의 대학진학률이 80~90%인데 비해 아직 중국은 60%에 머무르고 있는 점도 짧은 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울러 하향식 정부주도 정책의 고질적 병폐인 중복투자 및 자원 낭비의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존스 홉킨스大 Yuen Yuen Ang 등(2024)의 연구에 따르면 1990-2014년 중 무려 460만 건의 특허가 중국 내에 출원·등록되었는데, 대부분이 지방정부의 특허 건수 경쟁에 따른 것으로 정작 신규특허라 할 만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막대한 물량투입식 기술개발의 장려는 국가적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생산과잉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크다.

정작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산업정책으로 인해 총공급 역량은 크게 확대되는 데 비해, 총수요는 계속 지체됨으로써 총공급-총수요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는 점이다. 미중 무역갈등 이전의 우호적 국제경제 환경에서는 중국의 공급과잉이 해외수요에 의해 해소되었으나,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진행으로 해외수요가 위축된 현단계에서는 이를 대체할 내수소비 중심의 총수요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중국처럼 임금, 금리 등 생산요소 가격이 자유화되어 있지 않고 억압상태에 있는 경우, 생산요소의 소유자인 가계의 소득 제약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유효수요 부족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참고로 중국의 최종소비율(GDP 대비)은 56%로서 선진국 평균 80%는 고사하고 인도(66%), 태국(67%), 베트남(74%)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금번 '신질생산력'을 내세운 산업정책 추진으로 인해 만성적인 유효수요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산업정책 추진으로 총공급-총수요 격차가 커지면서 만성적인 유효수요 부족에 시달릴 전망

중국식 산업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비할 필요

중국이 독자적 과학기술 역량제고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중국의 중간재 국산화율은 '23년 92.9%까지 상승하였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의 대중 흑자를 주도하던 전자·화학 부문의 흑자가 크게 하락하고, 반도체를 제외한 중간재는 적자로 전환되었다. 앞으로도 한국의 저·중기술 산업은 중국의 거센 도전에 밀려 이 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리는 중국의 정책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우리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 제고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응해 배전의 노력이 필요

중국의 거센 저가공세에 한국 산업계 '초비상'

안 혜 영 연구위원

최근 중국의 초저가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 되면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내수 시장에도 중국산 저가 제품이 침투하여 국내 주요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중국산 제품은 '기술과 품질'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중국發 공세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출혈경쟁보다는 달라진 중국과 '공생' 가능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무역대상국 다변화 및 자원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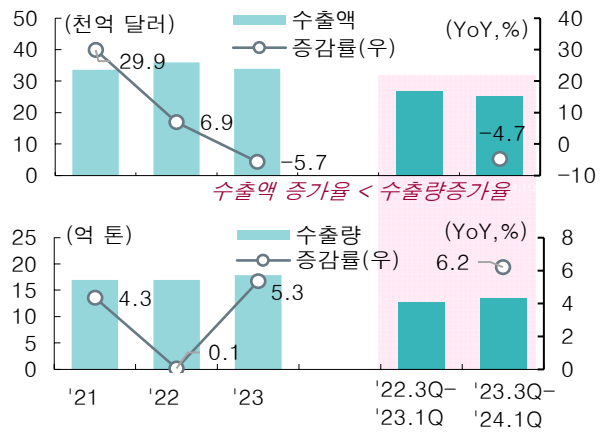
■ 중국은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저가 밀어내기 수출을 본격화

- 부동산 위기, 경기 침체 장기화로 내수 소비 여력이 크게 약화된 중국은 자국에서 소화하지 못한 재고 물량을 저가 '밀어내기' 수출을 통해 해소하기 시작
  - '23년 7월~'24년 3월 중국 총수출액은 전년비 4.7% 감소한 반면, 총 수출량은 6.2%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 수출업체들이 가격을 계속 인하하고 있음을 시사

- 이에 미국 등 주요국은 중국 불공정 무역 관행과 자국 산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반도체, 철강, 배터리 등 주요 품목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상
  - 지난 5월 미국이 중국산 주요 수입품(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셀 등)에 대한 관세를 최대 4배까지 인상한데 이어 EU도 현재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예정

- 중국은 자국 품목에 고율 관세를 매긴 국가에 보복 관세를 예고하는 한편, 정부 지원下 저가 수출 전략을 이어가고 있어 중국發 과잉공급은 장기간 지속될 전망

■ 중국의 對세계 수출액, 수출량 추이



자료 : Trade Map

■ 미국의 중국산 주요 수입품 관세 인상안

품목	관세 변화
전기차	25% → 100% ('24)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 → 25% ('24)
리튬이온 비전기차 배터리	7.5% → 25% ('24)
배터리 부품	7.5% → 25% ('24)
천연 흑연 및 영구자석	0% → 25% ('26)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0~7.5% → 25% ('26)
반도체	25% → 50% ('25)
태양전지	25% → 50% ('24)
항구 크레인	0% → 25% ('24)

자료 : 미 무역대표부(US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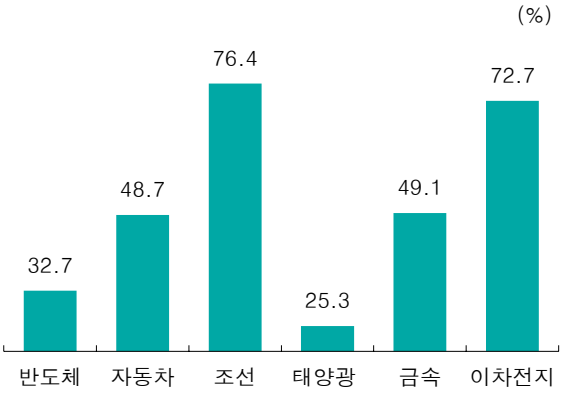
■ 중국의 거센 저가 수출 공세로 경쟁관계인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의 경쟁력 약화

- 현재 중국이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품목 중 다수가 국내 수출 주력 품목과 중복되고 있어 한국은 주요국 중 가장 큰 타격이 불가피
  - 한국과 중국의 상위 15개 수출 품목 중 10개 품목이 중복
- 특히 주요 경쟁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철강 등의 중국 수출 단가가 한국산의 30~70% 수준에 불과하여 국내 수출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
- 실제 최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수출이 본격화 되자 한·중 경쟁품목에서 중국 수출 점유율은 대폭 상승한 반면 한국의 수출 점유율은 정체 또는 둔화
  - 중국 수출 품목별 글로벌 점유율 변화 ('21년 → '24년 3월) : 철강(4.4% → 31.7%), 자동차(3.4% → 9.1%), 조선(26.6% → 46.6%)

■ 저가 중국 제품은 한국 내수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침투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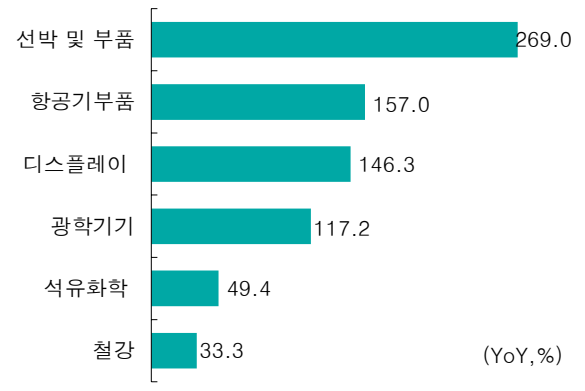
- 중국 덤핑 수출은 한국 내수 시장에도 직접 충격을 가하고 있으며 철강, 화학, 디스플레이, 항공기 부품 등 소재/부품을 중심으로 저가 수입 물량이 급증
  - '24.1-4월 對중국 수입 증감률(YoY): 선박 구조물 및 부품 269%, 항공기 부품 157%, 디스플레이 146%, 광학기기 117%, 석유화학 49%, 철강 33%
- 경기 부진 장기화로 원가 절감 필요성이 커진 기업들도 국산 대비 50~60% 수준인 중국산 소재/부품의 구매를 늘리고 있어 국내 소재/부품사의 입지가 약화
  - 그동안 국내 완성품 제조사들은 일부 범용제품 외에는 중국산 소재/부품의 사용을 꺼렸으나 중국산 소재/부품의 품질도 향상되자 이를 찾는 국내 기업이 증가
- 여기에 최근 미국, EU의 관세 조치 강화로 해당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은 중국산 제품이 상대적으로 관세 장벽이 낮은 한국에 대거 유입될 가능성도 존재

■ 한국산 대비 중국산 제품의 수출 단가 수준



주 : '24년 1-3월 평균 수출단가 기준
자료 : Trade Map

■ 주요 품목의 대중국 수입량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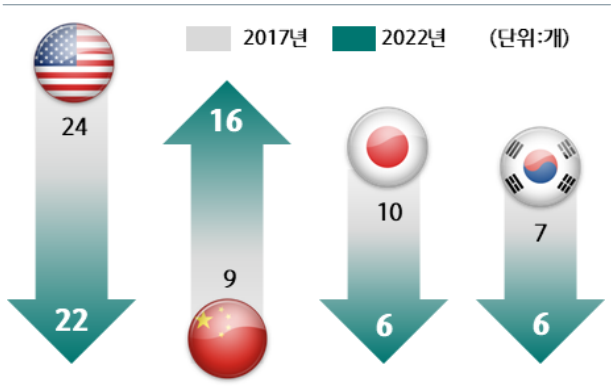


주 : 품목별 수입은 MTI 4단위 기준, 24년 수입은 1-4월 누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더 큰 문제는 중국이 '저가와 물량 '만이 아닌 '기술과 품질'에서도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

- 그동안 중국은 대규모 인력 자원, 광물 자원, 생산설비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확보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공략
- 그러나 지난 수년간 중국은 보조금, R&D, 고급 인력 확보를 통해 가격을 넘어 성능에서도 경쟁력을 지니게 되었고 현재는 기술에 기반하여 품질 경쟁력 강화
  - 그동안은 글로벌 소비자들이 중국산 제품을 '싼맛'에 구입했다면, 이제는 가격보다 '품질'을 자체를 선호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품목들이 생겨나고 있음
- 중국은 이미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범용 영역에서 저가 물량 공세를 통해 한국을 추월하였고, 최근에는 첨단 기술 영역에서도 점유율 확대하며 한국을 위협
  - 獨 메릭스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첨단 산업 비중이 높은 한국과 독일 등이 중국 굴기에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
- 日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산업별 63개 품목의 세계 시장 점유율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점유율 1위 품목 수는 16개로 미국에 이어 2위에 오른 반면, 한국의 점유율 1위 품목 수는 일본과 함께 6개에 그침
  - 중국 기업들은 특히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배터리 및 등의 첨단산업에서 우세를 보임
  - 전기차에서도 '23년 말 중국 비야디(BYD)가 美테슬라를 추월하여 1위로 부상
- 중국은 첨단 산업인 배터리, 반도체 등에 투입되는 핵심 광물에 대한 지배력도 높아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구축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어려워진 상황
- 한편 중국은 주요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로 기술 및 설비 투자를 강화하고 있어 중국의 공세는 장기간 지속될 전망
  - 이번 투자는 첨단기술 R&D, 디지털화, 친환경 시스템, 지능형 공장 전환 등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글로벌 표준 충족 및 품질 향상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

■ 국가별 글로벌 점유율 1위 품목 수 변화



자료 : 니혼게이자이신문

■ 중국, '산업 분야 설비 개선 시행계획'

주요 목표	• '27년까지 산업 설비 투자 규모를 25% 향상 • 기업 디지털 R&D 및 장비 보급률을 90% 이상 확대 • 기술 표준화 준수, SW 및 HW 업그레이드	
중점과제 :4대 분야 12개 내용	**장비 업그레이드**	노후장비, 고급장비, 테스트 장비의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실시
	디지털 전환	지능형 제조, 스마트공장, 디지털 인프라 도입 가속화
	녹색 설비 보급	탄소다배출 산업 친환경 전환, 에너지 효율 향상, 고형폐기물 처리 및 절수
	안전수준 향상	노후설비 안전 위험 해결, 폭발물 산업 무인화 및 업그레이드, 안전장비 적용

자료 : 중국 공업정보화부, 신화통신, 연합뉴스

■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 연계, 미국 등과의 공조 제약 등으로 우리의 대응 여지는 제한적

-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對중국 수출 제재 시 되돌아올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강경 대응이 여의치 않으며 현재 일부 품목에 한해 미국 등 우방국과 공동 대응
  - 한·미 양국은 중국산 저가 태양광 과잉공급에 대해 각국 차원 수입규제 조치와 기술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4월 30일,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

- 다만 공조 가능한 품목은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영역(태양광, 반도체, 배터리 등)에 한정될 것이며 미국의 궁극적 목표가 자국 우선주의인 만큼 한국의 수혜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낮아 보임

- 또한 중국 제품이 국내 시장에도 깊게 침투한 가운데 중국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과거 대비 상승하고 있어 규제를 통해 이를 막아내는데 한계 존재

■ 중국과 출혈경쟁보다는 '공생' 가능한 대응방안 및 무역대상국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

- 중국은 과거 한국이 獨, 日을 추격하여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을 당시보다 더욱 강력한 힘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품목에서 글로벌 선두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 방식의 무역제재로는 대응이 어려움
  -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첨단 기술 산업에 투입되는 다수의 핵심광물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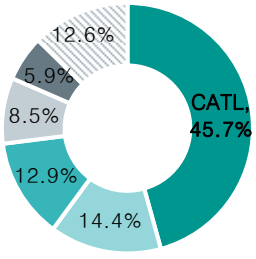
- 중국의 추격이 본격화된 품목의 경우, 출혈경쟁보다는 국내 공급망에 중국산을 포함하여 원가절감 및 자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차세대 신기술 확보를 통해 중국과 기술 격차를 벌리는데 주력할 필요

- 한편 글로벌 교역에서는 개도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중 등 강대국에 집중된 무역 구도에서 벗어나 무역대상국 다변화 및 자원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
  - 특히 자원 부국인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와의 협력 강화 검토

■ **한국을 추월한 중국의 주요 품목 (2022년 기준)**

자동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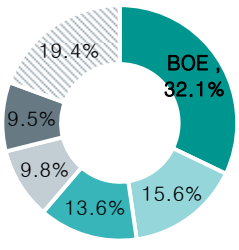
상위 5개사 점유율 87.4%



국가	기업명	점유율
중국	CATL	45.7% (+7.0)
중국	BYD	14.4% (+6.7)
한국	LG에너지 솔루션	12.9% (-5.7)
일본	파나소닉	8.5% (-3.5)
한국	SK온	5.9% (-0.3)

대형 액정 패널

상위 5개사 점유율 80.6%



국가	기업명	점유율
중국	BOE	32.1% (+3.7)
한국	LG Display	15.6% (+0.3)
중국	CSOT	13.6% (+1.9)
대만	Gunso Koden	9.8% (-1.8)
대만	AUO	9.5% (-2.7)

주: ( )는 전년비 점유율 변화 %p
자료 : 니혼게이자이신문

영국 챌린저뱅크, 흑자전환 이후 3색 확장전략

유 승 원 연구원

영국 챌린저뱅크(디지털 챌린저뱅크)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특화서비스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최근 수익성도 개선되어 흑자전환에 성공하였다. 흑자전환 이후 영국의 3대 디지털 챌린저뱅크는 각기 다른 확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Monzo는 연금 출시 등 디지털 상품군 확대를, Starling은 BaaS 기반 글로벌 진출을, Revolut는 슈퍼앱을 목표로 비금융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은행권에서도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한 수익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영국의 디지털 챌린저뱅크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고객기반을 확대

- 영국 금융당국은 대형은행의 과점 완화 및 경쟁 촉진을 위해 챌린저뱅크를 도입
  - 2010년 출범한 1세대 챌린저뱅크는 지점을 보유하고 영업 범위가 기존 은행과 유사한 반면, 2015년 등장한 2세대(디지털) 챌린저뱅크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

- 디지털 챌린저뱅크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급성장
  - 영국 4대은행의 개인 당좌계좌 점유율은 2018년 68%에서 2021년 64%로 감소한 반면, 디지털 챌린저뱅크의 점유율은 동 기간 1%에서 8%로 증가[1]

■ 영국 3대 디지털 챌린저뱅크의 수익성이 개선되며 최근 모두 흑자전환에 성공

- (Monzo) 소매금융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2023년 Instant Access Saving Pots와 Monzo Investment(블랙록과 제휴한 투자상품) 출시로 2024년 흑자전환에 성공[2]
  - 3%의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Instant Access Savings Pots 출시로 전년 대비 고객 예금이 88% 증가하였으며, 투자상품 출시로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Starling) 중소기업금융에 특화하여 2024년 영국 중소기업금융 시장의 약 9%를 차지하며, 모기지 대출 출시 등으로 2022년 흑자전환 이후 3년째 흑자 달성

- (Revolut) 해외 결제·송금 서비스로 시작하여 글로벌 금융 슈퍼앱을 목표로 주식, 암호화폐 등 서비스 확대 및 유럽, 아시아 등의 진출로 2021년 이후 흑자 달성
  - EU 30개국, 브라질, 호주 등 챌린저뱅크 중 가장 많은 국가에 진출해 고객기반 확대
  - Revolut 고객 수: 1,640만('21) → 2,620만('22) → 3,500만('23) → 4,000만('24.5)

|1| "Strategic Review of Retail Banking Business", FCA, 2022

|2| "Digital bank Monzo reports first annual profit", Financial Times, 2024.6.3

■ 영국 디지털 챌린저뱅크는 수익성 달성 이후 각기 다른 확장전략을 추진

- (Monzo) 기존 은행과 유사한 모델의 디지털 상품 출시 및 해외진출 추진
  - Monzo는 2024년 연금상품 출시 및 미국, 아일랜드 등 글로벌 진출을 추진할 계획으로 Alphabet(Google의 모회사)의 독립성장펀드 등의 투자자로부터 6.1억 달러의 자금조달

- (Starling) BaaS 기반 글로벌 진출 등 기술 중심 회사로의 전환을 추진[3]
  - Starling은 2022년 EU 뱅킹 라이선스 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BaaS 사업모델을 활용한 글로벌 진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
  - 2022년 3월 BaaS 전용 자회사 Engine을 출시하고 2023년 루마니아의 Salt Bank, 호주의 AMP Bank와 디지털은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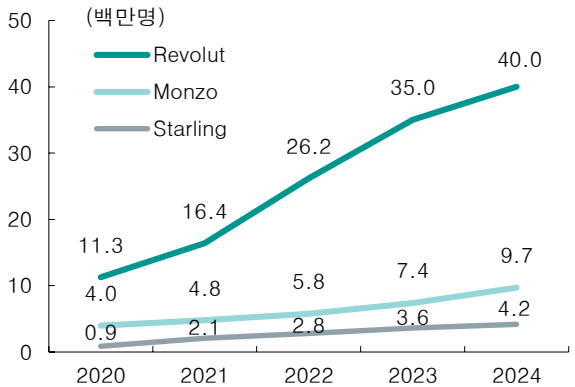
- (Revolut) 글로벌 금융 슈퍼앱을 목표로 금융서비스 및 비금융서비스 확대
  - Revolut는 2021년 'Stays'라는 숙박 예약 서비스 출시, 2022년 메신저 출시에 이어 2024년 eSIM 데이터 요금제 출시로 통신업 진출 및 광고업 진출 계획을 발표

■ 국내 은행들도 사업다각화를 통한 비이자수익 확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국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2021년 진출한 토스뱅크를 제외하면 이보다 앞서 흑자전환하고 최근 펀드 판매, 글로벌 진출, 외환 출시 등 사업다각화 추진
  - 카카오(펀드 판매, 글로벌 진출), 케이뱅크(BaaS 제휴), 토스뱅크(외환상품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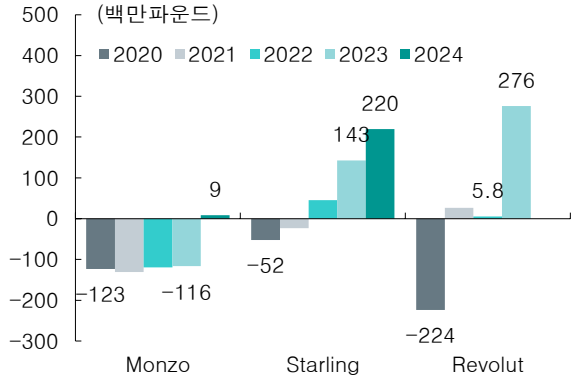
- 국내외 인터넷은행들의 규모가 점차 성장하며 수익성이 개선되어 흑자로 전환하며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상황으로, 국내 시중은행들도 이자수익에 편중된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에서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영국 디지털 챌린저뱅크 고객수 추이



주 : 24년 고객수는 Monzo, Starling('24.3 기준), Revolut('24.5 기준)
자료 : 각 사

■ 영국 디지털 챌린저뱅크 당기순이익 추이[4]



자료 : 각 사, Dubai Fintech Summit[5]

|3| "Can Starling Bank make tech its business?", Financial Times, 2023.7.30

|4| Monzo, Starling은 3.31 기준, Revolut는 12.31 기준

|5| Revolut의 2023년 실적은 2024.5월 Dubai Fintech Summit에서 CEO가 언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함

가족 자산의 다음 세대와 연결 맺기

하 서 진 수석연구원

향후 자산관리에서 주목할 섹터 중 하나는 세대 간 자산 이전(상속 등)이지만 많은 가족이 자산 이전 계획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관리회사는 이전 받은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게 관리하는 한편 자산을 이전 받은 다음 세대의 성향을 반영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자산이전 시 도움되는 금융서비스가 확충되고 있으며 다음 세대의 성향을 고려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자산관리의 새로운 섹터로 세대 간 자산 이전(상속 등)이 주목[1]

- 2024년 이후 자산관리회사의 사업 계획은 새로운 지역/시장 확대, 연구역량 증대 순이며 자산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시장으로 세대 간 자산 이전이 부각
  - 가족에게서 이전받는 자산이 증가하는 여성, 연간 자산성장률이 글로벌 평균(3.8%) 대비 높은 아시아(7.8%)도 주목(BCG, Global Wealth Report 2023)

- 현 세대의 자산을 이전 받는 다음 세대는 자산이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자산관리회사를 찾기에 자산관리회사의 운용자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
  - 글로벌 자산관리자들 또한 재무계획(37%), 은퇴계획(27%), 부동산 계획(21%), 투자관리(15%) 순으로 운용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판단(Acuity Knowledge Partners)

■ 하지만 많은 가족이 자산 이전(상속 등) 계획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실정[2]

- 자산을 이전받는 다음 세대의 75%는 원활한 상속 절차를 원하지만 40%는 팬데믹 이후에도 유언장이나 명문화된 계획이 없고 상속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적절한 준비 없이 자산이 상속될 경우 갑작스러운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잠재적인 재정적 부실이 발생해 가족 간의 불화로 이어질 가능성
  - Williams Group이 20년에 걸쳐 미국의 3,200가구를 연구한 결과, 부유한 가정의 70%가 2세대에서 재산이 감소하고 90%가 3세대에서 재산이 감소된다고 분석

- 투자에 대한 가족 간 대화로 자산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가족 자산관리에 다음 세대를 참여시키는 것은 세대 간 가치 공유에도 중요

|1| “The future of wealth: women, next gen and Asian clients”, Professional wealth management, 2024.04.10

|2| “Engaging with the next generation of family wealth”, Professional wealth management, 2024.0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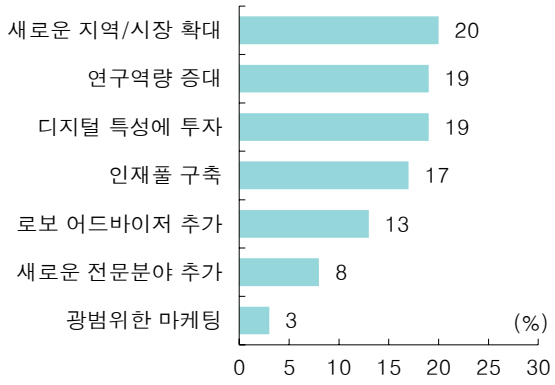
■ 자산관리회사는 이전 받은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게 관리하는 한편 다음 세대의 성향을 반영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자산을 이전받은 다음 세대는 가족 자산(사업)을 주도하면서 성장 지향적 투자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투자를 추진
  - 다음 세대가 가족 사업을 주도하며 나타나는 변화는 성장 지향적 투자로 전환(34%), 사이버 보안 개선(31%), 대체투자로 전환(27%), 신기술과의 통합(24%) 순
- 자산관리회사는 다음 세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음 세대의 투자 성향을 고려한 새로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가족 자산의 수익성을 제고
  - 또한 자산 이전 과정에서 현 세대의 통제 하에 다음 세대가 자산을 관리, 시행착오를 경험하도록 해 자산관리 경험과 가족 비전을 공유하도록 환경 조성
- 특히 다음 세대는 자산 이전 후 자산관리회사를 바꿀 수 있어 자산관리회사는 다음 세대와의 소통을 가능한 빨리 추진해 자산관리 지속 가능성을 증대할 필요

■ 국내 금융기관에서도 자산 이전 시 필요한 금융서비스가 확충되고 있으며, 다음 세대의 성향을 고려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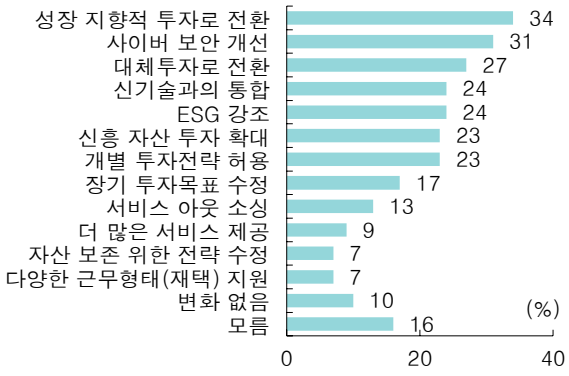
- 유언대용신탁, 유언신탁 등 자산 이전에 관련한 금융 서비스/상품이 확충되었으며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관련 산업도 확대될 전망
- 예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이 이전될 경우 자산의 이전 및 운용 방향에 대해 다음 세대(상속인 등)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
- 또한 가족 자산(사업)의 주도 세대가 바뀌며 수익성 확대를 위한 투자자산 변화, ESG 등 트렌드 반영, 장기 투자목표 수정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응한 자산관리 방안도 구축

■ 2024년 이후 자산관리회사 사업 확장 계획



자료 : Acuity Knowledge Partners

■ 다음 세대가 가족 사업을 주도한 후 나타나는 변화



자료 : Campden Wealth/BNY Mellon Wealth Management

금리: 지표 의존적 중앙은행 + 물가지표 둔화

김 응 태 연구원

글로벌 금리는 6월 FOMC 내 매파적 점도표 변경에도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면서 하락했다. 국내 금리는 대외금리 하방압력 속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며 하락했다. 6월 FOMC에서 점도표를 50bp 상향조정했으나 지표에 충실한 정책결정 기조를 재차 강조한 가운데 같은 날 발표된 美 CPI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시장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는 지속됐다. 향후 국내외 금리는 디스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정책 전환이라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금리 상단이 제한될 전망이다.

■ 글로벌 금리는 매파적 점도표에도 지표 의존적인 연준과 전반적인 물가 둔화에 금리 하락

- 파월 의장은 6월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갔으나 최근까지의 디스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을 감안해 물가전망을 상향하고 금년 점도표를 상향조정(3회 인하→1회 인하)
  - '24/25년말 PCE물가상승률 전망(%, YoY): 3월 FOMC 2.4/2.2 → 6월 FOMC 2.6/2.3
- 파월 의장이 지표 의존적 의사결정 태도를 강조한 가운데 5월 물가지수가 연속으로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매파적 점도표에도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지속
  - 美 CPI/PPI상승률(%, YoY) : 3월 3.5/2.1 → 4월 3.4/2.2 → 5월 3.3/2.2 (예상 3.4/2.5)
- 최근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높아진 가운데 소매판매마저 예상을 하회하면서 고용시장 둔화와 초과저축 소진에 따른 소비 여력 제한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란 우려 확대
  - 美 소매판매(%, MoM): 2월 0.7 → 3월 0.5 → 4월 -0.2 → 5월 0.1 (예상 0.3)
- 글로벌 금리는 매파적 점도표에도 美 물가·경기 둔화 기대가 지속되며 하락
  - 미국채 2/10년물 금리(%) : 6.7일 4.90/4.44 → 14일 4.72/4.23 → 20일 4.75/4.27

■ 국내 금리는 대외금리 하방압력 속에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세 크게 유입되며 하락

- 한국은행은 물가설명회에서 물가 수준은 높으나 물가상승률은 둔화되고 있고, 물가 전망 경로가 5월 금통위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고 언급해 기조를 유지
  - 물가상승이 아닌 높은 물가수준이 지속되는 것은 통화정책으로 대응이 어렵다 발언
- 최근 외인 국채선물 매수가 크게 확대된 점도 국채 금리 하락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
- 韓 금리는 한은 정책 기조 유지 속 대외 금리 하락, 외인 매수세 유입 등으로 하락
  - 국고 3/10년 금리(%) : 6.7일 3.31/3.39 → 14일 3.25/3.30 → 21일 오전 3.20/3.27

■ FOMC, 점도표 상향조정과 완화적 기자회견 속 지표 추가 확인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결

- 성명문에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을 언급했지만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감안해 '24년 물가전망 및 점도표(3회→1회 인하)를 상향하고 기준금리를 동결
  - 단, 금년 점도표 50bp 상향조정에도 '26년까지의 총 인하 폭은 유지(9회, 225bp)

- 파월 의장은 "5월 물가는 긍정적이고 다수 위원들이 이를 점도표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연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은 보수적"이라 발언하며 매파적 점도표 변화를 일부 중화
  - 5월 한 달만으론 정책 완화를 시작할 만큼의 확신을 주지 않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가운데 수정 경제전망은 데이터에 따라 조정된다며 지표 의존적 태도를 강조

- 점도표 조정이 예상보다 매파적이었으나 연준이 지표에 충실한 정책결정 기조를 강조한 가운데 같은 날 발표된 소비자물가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당일 금리 하락
  - 장기 중립금리가 상향조정된 부분도 매파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파월 의장은 "현재 금리가 적절한지 여부에 있어서는 중요도가 떨어진다"며 추가 언급을 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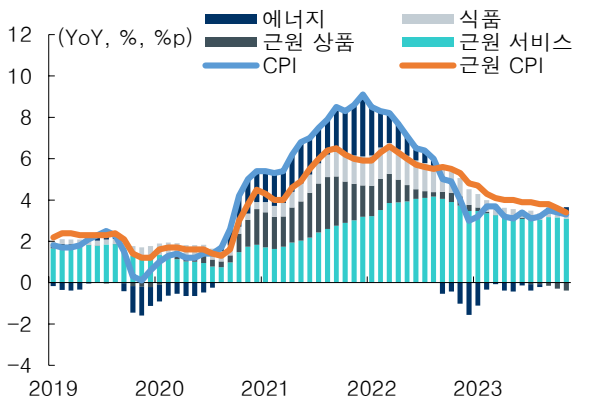
■ 디스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정책 전환이라는 기대감 지속되며 금리 상단 제한되는 흐름 지속

- 연내 예상 인하 폭 축소에도 중기 기준금리 목표('26년 말 상단 3.25%)가 유지됐고 연속된 고무적인 물가지표 발표로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가 지속

- 주거비가 디스인플레이션 지속의 핵심 변인인(24.1~5월 CPI 상승분의 60%가 주거비에서 기인) 가운데 신규 임대비 지수 하락에 따라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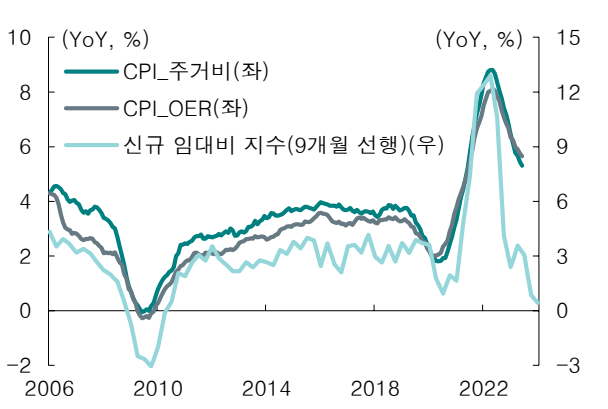
- 점진적인 디스인플레이션 흐름 속 초과저축 소진, 고용 시장 정상화로 소비 여력도 제한됨에 따라 美 정책 전환 기대 지속되면서 금리 상단 제한되는 흐름 지속될 전망
  - 단, 연속된 긍정적 경제 지표들로 단기간 내 금리 하락폭 커진 점은 유의할 필요
  - 韓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10%~3.35%, 3.20%~3.45% 범위로 전망

■ 주요물가 상승률 및 항목별 기여도



자료 : Bloomberg

■ 미국 주거비 및 선행지표(New Tenant Rent Index)



자료 : BLS, Cleveland Fed

외환: 원화에 아군은 없다...유로화 너마저!

오 현 희 연구위원

지난 2주간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물가와 소매판매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유럽 정치 리스크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아울러 中 지표 부진, BOJ 통화완화 기조에 따른 위안화와 엔화 약세도 가세하며 1,380원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향후 2주간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에 따른 달러화 강세 압력이 지속되면서 1,300원대 중후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 FOMC發 불확실성 해소에도 불구 유럽發 달러강세 압력 등으로 상승

- 원/달러 환율은 매파적 FOMC 결과(금리인하 예상 횟수 축소) 속 유럽 의회 선거결과와 佛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영향 등으로 상승
- 아울러 대내외 불안으로 위안화가 약세를 지속한 영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정상회담 등 북한發 지정학 리스크도 불거지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폭 확대
- 다만, 美 물가 둔화(예상을 하회한 CPI와 PPI)와 소매판매 부진 등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를 높이는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일시적이나마 원/달러 환율 상승폭 축소

■ [국제 환율] 美 물가둔화와 소비부진에도 유로화 등 타통화 약세의 영향으로 달러 강세

- 달러화는 예상을 하회한 물가지표에도 불구하고 매파적인 6월 FOMC 결과와 유로화·엔화 등 달러지수를 구성하는 통화들이 약세를 보인 영향 등으로 반등
  - 다만, 미국의 5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0.1% 증가에 그치며 예상치인 0.3%를 하회하자 연준의 9월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
- 유로화는 6월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 리스크 확대로 큰 폭의 약세를 시현하였으나, 美 소비 부진에 의한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낙폭 축소
- 엔화는 6월 BOJ 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7월까지는 현 수준(월간 6조엔)의 국채 매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완화기조를 보이자 약세 폭 확대
- 위안화는 5월 소매판매를 제외한 중국의 경제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인민은행이 기준금리인 LPR(대출우대금리) 1년물과 5년물 금리를 동결하자 급락

■ 유럽內 우파진영의 영향력 증대 등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외환시장에도 영향

- 6월 유럽의회 선거 결과 극우 세력의 약진이 나타난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 선언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

- 유럽의회 선거 이후 유로화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佛 극우정당 집권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로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
  - 프랑스 CAC40 지수가 급락하고 국채 10년 스프레드도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유로화 약세가 심화되었으며, 이는 달러화 강세로 이어져 원/달러 환율에 영향
  - '17년 佛 선거 당시 극우정당 RN의 르펜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유로화가 급락했던 상황 등에 비춰볼 때 금융시장 불안 지속에 유의

- 대규모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佛 극우정당인 RN이 과반 이상의 의석 확보시 정치 및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어 6.30일 예정된 1차 선거 결과를 주시할 필요
  - 아울러 유럽연합 집행위가 프랑스, 벨기에 등에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1] 개시를 제안할 방침임을 밝히면서 프랑스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우려도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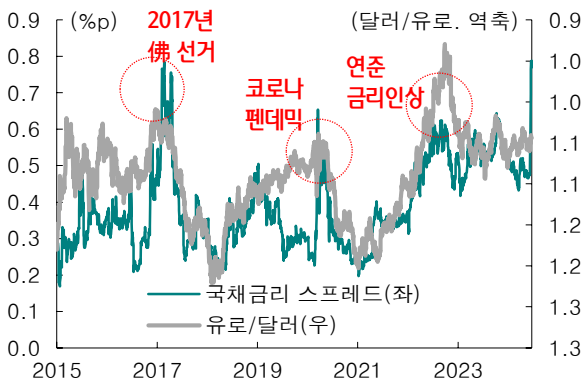
■ 원화는 美 경제지표 부진에도 亞 통화 약세와 유럽 정치 불안이 지속되며 약세 예상

- 미국 경제의 연이은 둔화 조짐에도 프랑스 정치 리스크, 통화정책 차별화(스위스 추가인하, BOE 도비시한 동결 결정) 등으로 달러화 강세 압력은 지속될 전망

- 아울러 BOJ에 이어 인민은행 또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밝힌 가운데 中- EU간 무역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亞 통화약세에 따른 원/달러 상승 압력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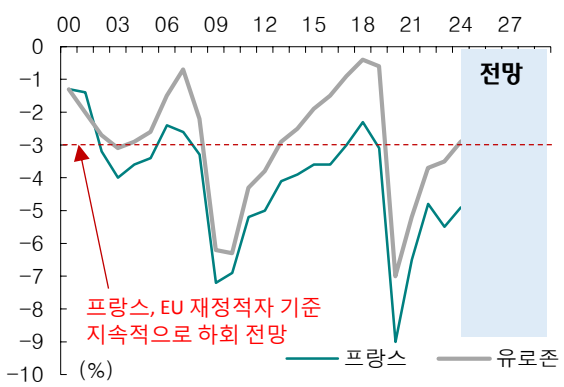
- 다만, 수출 회복에 따른 반기말 수출업체 네고 물량 출회 가능성 등은 상단을 제한하며 향후 2주간 원/달러 환율은 1,350~1,400원에서 움직일 전망

■ 유로화 및 프랑스-독일 국채금리(10년)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 유로존과 프랑스의 GDP대비 재정적자 추이 및 전망



자료: IMF

[1] 방만한 재정을 운용하는 회원국에 규정에 따른 예산 수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의 제재를 부과

부동산: 시장 혼조세에 매수자는 '안전'을 선택

하 서 진 수석연구원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지역별 시황이 차별화된 가운데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하며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매매거래량과 주담대 취급 규모가 늘었으나 완연한 시장 회복은 아니며 매수세도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금리 인하 등 가격 상승요인이 뚜렷해질 때까지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고 시장 혼조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공사비 상승, 사업성 저하로 주택공급 확대는 단기간 내 어려워 공급부족 우려가 심화될 경우 매수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지방은 하락했으나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하며 하락폭 축소

- 시장 관망세로 지방에서는 하락했으나 서울 대부분 지역과 일부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폭 축소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MoM) : -0.12('24.3월) → -0.05(4월) → -0.02(5월)
- 아파트는 매수세가 집중되며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으나 연립은 하락폭이 확대되고 단독은 상승세를 유지하며 유형별 시황이 차별화
  - 유형별 상승률(%, MoM, 4월/5월) : 아파트 -0.08/-0.03, 연립 -0.08/-0.11, 단독 0.08/0.09
- 전세가격은 매매시장 부진, 수도권 중심 전세수요 확대, 전세 매물 부족 등으로 전월 대비 상승폭 확대
  -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MoM) : 0.05('24.3월) → 0.07(4월) → 0.12(5월)

■ 매매거래와 주담대가 늘었으나 완연한 회복은 아니며 매수세도 일부 지역에 집중

- 매매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주담대 취급도 증가했으나 매매거래는 여전히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주담대도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 은행권 주담대 증가(조원, 은행자체/디딤돌·버팀목) : 3.6/2.8('24.4월) → 3.6/3.8(5월)
- 수도권에서도 수요 위축 영향이 큰 지역(서울 도봉구, 노원구)이나 외곽 지역(경기도 평택, 양주, 의정부 등)은 하락세 지속되며 시장 혼조세
  - 매매가격 상승률(%, MoM) : 경기 평택 -0.25, 양주 -0.46, 의정부 -0.27
- 시장 내 뚜렷한 가격 상승기대가 형성되지 않아 매수세는 시황이 안정적인 서울 등 수도권 핵심지역에 집중되고 타 지역에서는 전세를 선택하면서 관망세 유지

■ 가격 상승요인이 뚜렷해질 때까지 실수요 중심 거래와 시장 혼조세 지속

- 금리 인하, 공급 부족, 매수심리 확대 등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이 뚜렷해질 때까지 매매거래는 실수요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
  -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요건(모든 가구 대상, 부부합산 1.3억→2억원) 완화로 인해 실수요자의 매매거래는 증가할 소지

- 분양물량은 늘었으나 청약수요는 서울 외에는 저조해 미분양 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지방 중심으로 매물 적체도 심화
  - 연간 분양물량/청약경쟁률(만호, 배수) : 21/11('23년) → 35/6('24년 예상/'24.6월 기준)

- 다만, 분상제 적용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3구와 용산구,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일부 1기신도시에서는 상승 거래가 발생하며 시장 혼조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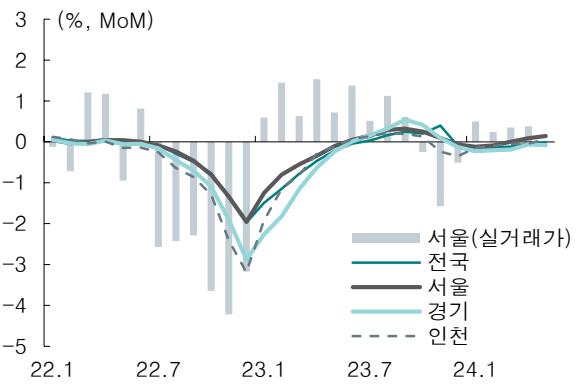
■ 사업성 저하로 공급 확대는 단기간 내 어려워 공급부족 심화 시 매수심리에 영향

- 중장기 공급물량인 착공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나('24.4월 YoY 30%) 최근 3년간 착공물량 감소세는 유지
  - 착공물량(만호) : 58('21년) → 38('22년) → 24('23년) → 9('24.1~4월)

- 재건축 규제 완화, 신속통합기획 등의 정책적 지원에도 공사비 부담, 사업성 저하 등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확대는 중장기 소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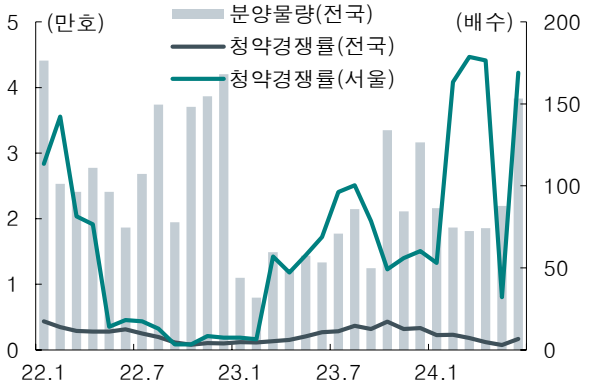
-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5년부터 감소세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심화될 경우 매수심리를 자극할 가능성
  - 아파트 입주물량(만호, 전국/수도권) : 36/19('23년) → 35/16('24년) → 24/12('25년)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 한국부동산원(종합주택 매매가격, 공동주택 실거래가)

■ 월별 분양물량, 청약경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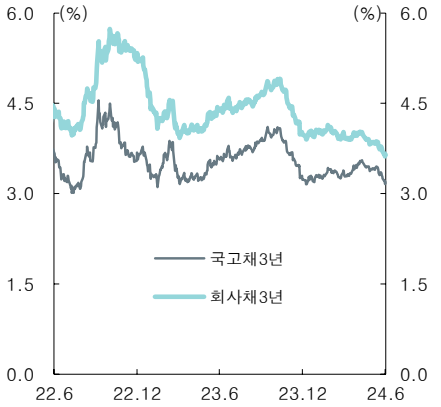


주 : 청약경쟁률은 3개월 이동평균 수치를 사용
자료 : 부동산114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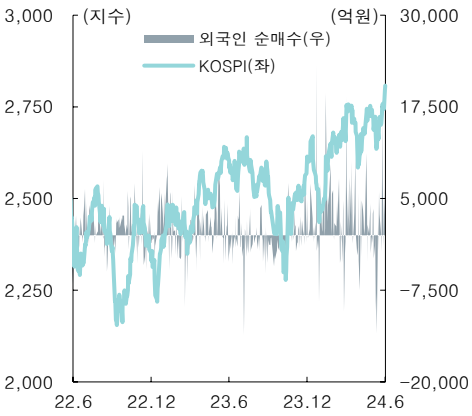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2년말	3.38	3.98	4.17	5.23	3.72	3.74
'23년말	3.91	3.83	3.69	3.90	3.15	3.16
5월말	3.58	3.61	3.60	3.87	3.45	3.50
5월 14일	3.50	3.60	3.52	3.69	3.25	3.27
5월 17일	3.50	3.60	3.50	3.66	3.21	3.23
6월 18일	3.51	3.60	3.50	3.67	3.21	3.24
6월 19일	3.51	3.60	3.48	3.62	3.16	3.19
6월 20일	3.52	3.60	3.50	3.65	3.20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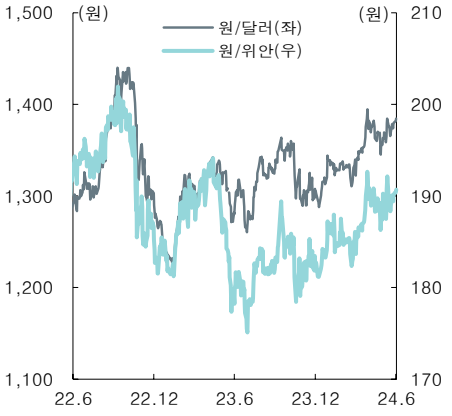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2년말	2,236.4	60,365	361	-1,437
'23년말	2,655.3	94,189	460	7,017
5월말	2,636.5	163,539	614	-13,369
5월 14일	2,758.4	161,870	645	7,315
5월 17일	2,744.1	124,576	594	-1,374
6월 18일	2,763.9	132,695	562	6,493
6월 19일	2,797.3	140,696	647	2,757
6월 20일	2,807.6	135,770	758	4,966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2년말	1,264.5	950.3	181.5	1,349.0
'23년말	1,288.0	911.0	181.2	1,425.1
5월말	1,384.5	879.9	192.2	1,501.8
5월 14일	1,379.3	876.1	190.1	1,476.1
5월 17일	1,381.2	875.4	190.3	1,482.2
6월 18일	1,381.1	874.7	190.4	1,483.3
6월 19일	1,381.8	873.9	190.4	1,484.5
6월 20일	1,384.6	871.1	190.7	1,4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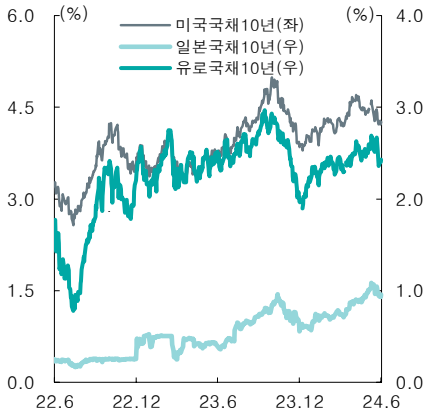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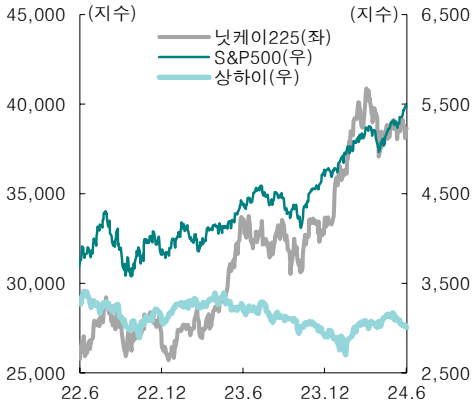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2년말	4.33	4.59	4.43	3.87	0.42	2.57
'23년말	5.33	5.33	4.25	3.88	0.61	2.02
4월말	5.33	5.34	4.87	4.50	1.07	2.66
5월 14일	5.33	5.34	4.70	4.22	0.94	2.36
5월 17일	5.33	5.34	4.77	4.28	0.94	2.41
6월 18일	5.33	5.35	4.71	4.22	0.94	2.40
6월 19일	-	-	4.71	4.22	0.93	2.40
6월 20일	-	5.35	4.74	4.26	0.96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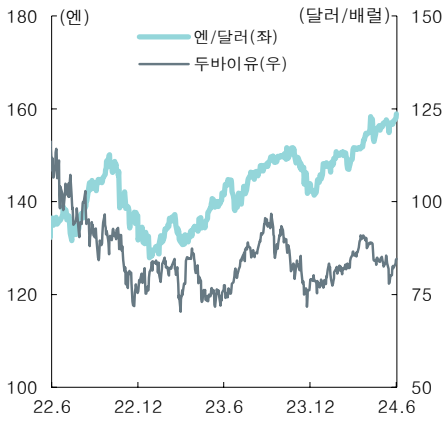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2년말	3,839.5	26,094.5	3,089.3	3,793.6
'23년말	4,769.8	33,464.2	2,974.9	4,521.4
4월말	5,277.5	38,487.9	3,086.8	4,983.7
5월 14일	5,431.6	38,814.6	3,032.6	4,839.1
5월 17일	5,473.2	38,102.4	3,015.9	4,880.4
6월 18일	5,487.0	38,482.1	3,030.2	4,915.5
6월 19일	-	38,570.8	3,018.0	4,885.5
6월 20일	5,473.2	38,633.0	3,005.4	4,947.7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2년말	131.27	1.071	78.8	1,826.2
'23년말	141.36	1.106	79.1	2,083.5
5월말	157.28	1.085	83.4	2,345.8
5월 14일	157.37	1.070	82.3	2,349.1
5월 17일	157.70	1.073	-	2,329.0
6월 18일	157.83	1.074	83.4	2,346.9
6월 19일	158.06	1.074	84.3	-
6월 20일	158.88	1.070	84.5	2,369.0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메 모

하나금융포커스

제14권 13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4년 6월 21일 인쇄

2024년 6월 24일 발행

발행인 이승열

편집인 장보형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4권 13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